

Vol.226

2021 02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World Watch List 2021월드와치리스트
세계 기독교박해 지수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6:10)

최홍규 목사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 가리봉교회 담임)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하여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곧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 이 지구 위에 천국이 건설되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과 하늘은 다 없어질 것이고(마24:29),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새 예루살렘(계21:4)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요 선물이요 은혜이지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속히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오실 것에 대한 약속과 징조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와 지구의 역사와 운명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충족할 만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시대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과 같이 이제는 깨어야 할 때이고 밤이 어둡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더욱 실감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온 세계를 멈추고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교육, 전도, 교제 등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상(비대면)예배라는 궁여지책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것으로 교회역할과 신앙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팬데믹이 끝나고 정상화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징조로 생각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롬14:17)고 했습니다. 세상은 풍요해지고 더욱 발전해가지만 의, 희락, 평강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당 안에만 갇혀서 모이고 일하고 행사하지만 그 거룩한 시간에 의, 희락, 평강 보다는 미움, 시기, 다툼, 분열, 욕심, 불의, 교만이 가득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이지 못함을 탄식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이제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실현해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우리

의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말도 이에 속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곧 이것입니다.

성프란시스의 기도와 같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실현해가야 합니다.

OpenDoors 7가지 핵심 가치



- 01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02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 03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04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05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0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07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CONTENTS

- 04 북한선교회현장 - 탈북여성사역자 레베카에게 듣다
- 06 WWL2021월드와치리포트 - 세계 기독교박해 지수
- 10 기독교박해 동향 5가지
- 16 통계로 보는 세계 기독교박해 보고
- 20 사역보고 - 치유와 소망, 복음의 전진
- 22 희망의선물2021 캠페인 - 마이크로론
- 23 한국오픈도어연중캠페인

2021년 02월호 | 통권 226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준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탈북여성사역자 레베카에게 듣다

“물론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레베카는 중국에서 탈북여성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이 탈북여성들은 모두 인신매매의 덫에 걸려 팔려온 이들입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낳은 성비 불균형으로 여성이 부족해지자 중국의 극빈층 남성들은 종종 신부를 구하지 못하고 신부를 돈으로 사는데 많은 경우 탈북여성들이 그 피해자가 됩니다. 레베카가 개인사정으로 현장을 잠시 떠나 있는 동안 그녀를 만나 사역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 레베카, 이 탈북여성사역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해요. 그게 주된 사역이에요. 모임은 주로 한달에 두 번 정도 가져요. 나는 그들에게 말씀 자체를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창세기부터 차례차례 가르칩니다.

Q 이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자매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비웃지요, 말도 안되는 얘기로 생각하니까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어려웠어요. 그들 생각 속에는 어릴 때부터 북한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상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들은 말씀이 마음에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들은 정말 믿고 싶는데, 성경말씀이 이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과 너무나 많이 다르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들을 붙잡고 앉아서 말로 설득하기 보다는, 이들의 생각이 변화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성경말씀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으면, 어느날 이들 스스로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지요.

Q 이 사역현장에서 직면하는 도전들을 몇 가지 들자면 어떤 것들이가요?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법적 서류가 없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지 않아요. 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지요. 게다가 우리가 하는 일이 중국 당국이 좋아하는

일도 아니구요. 그래서 저는 사역이 위협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피해야 하죠. 감시라든가 그런 걸 피하면서 이들을 만나야 하는게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요. 저의 사명은 북한 자매들을 돌보는 것인데, 그 자매들은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아왔고, 그중 일부는 탈북과정에서 이용을 당했고 상당수가 인신매매로 중국 가정에 팔려온 거죠. 이 자매들은 중국남자들과 결혼을 해도 여전히 불법이민자 신분이에요. 이 자매들의 삶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새 가족으로 환영을 받아야 마땅한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해요. 가족으로 환영받는 대신에 그저 아기를 낳는 도구로 취급을 받아요. 법적인 신분증이 없으니 중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도 없어요.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도 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매들을 찾을 수 있었고,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곤 했지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곤 했어요.

Q 특히 기억나는 어려운 사건이 있었다면?

가장 기억나는 한 자매가 있어요. 그녀의 남편은 너무나 나이가 많아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아이를 돌봐야 하고, 일도 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야 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녀는 남한으로 가기로 결심했지요. 남한으로 가려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에 두고 온 아이를 데려 오려면 브로커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남한으로 가려고 한 거지요. 그녀는 중국인 남편을 두고 탈출했지만 중국 공안에 잡혔어요. 우리는 서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걱정이 되어 그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녀를 위해 기도를 했을 때 함께 기도한 성경공부 그룹의 모든 자매들과 저는 마음에 안정이 되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녀가 풀려날 거라고 말씀해주시는 거 같았어요. 그것은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니다. 우리는 중국 경찰에 연락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은 걱정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채로 몇 달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를 공안으로부터 풀어주셨고 그녀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계획했던 것을 이룰 수는 없었지만, 지금 가족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Q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주 걱정됐었죠.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자매들이 어떻게 분명하게 그러지지가 않았고요. 그저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한 자매들이고 나와는 다르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만 말해요. 그렇게만 말하고 싶어요...그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물론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예요. 그들을 동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세워주세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Q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열매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중국가족은 탈북여성들이 도망갈까봐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들이 탈북여성을 가혹하게 다루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탈북여성들 또한 양순하게 행동하지 않지요. 그런데 (중국)가족들이 ‘이들이 교회에 가더니 달라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자매들은 성경공부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그 (중국)가족들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그들이 사랑스러웠어요. 우리는 때로 북한에 있는 이들의 친척이자 북한 지하교회 성도인 이들에게 도움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소식을

받고, 안전하게 물품이 전달되었는지와, 그들이 우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지속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매우 기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 자매들은 처음에는 오직 저에게 자기들의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말은 듣지를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서로 미워했지요. 그래서 자매들 사이에 충돌과 다툼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변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아요. 그 순간이 바로 제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말 터치하셨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자기연민의 슬픔에 빠져 있던 이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점점 변화되어 자기들의 조국인 북한을 위해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이 자매들은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요. 처음에는 모두 받기만을 바라고, 금전적 도움과 다른 여러가지 도움을 받으려고 성경공부에 왔던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Q 혹시 후회되는 일이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제목도 말씀해주세요

처음에, 자매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가르치려고 한 것이 그들을 더 힘들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며 자기연민에 빠져있던 한 자매에게 저는 그 어두운 감정을 떨쳐버리고 나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하곤 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위로해주고 싶어요. 기도제목은 첫째로, 성령의 열매가 이 자매들 가운데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 또 중국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확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자매들이 통일 한국을 위해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들이 주님의 강력한 제자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 기도입니다.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월드와치리스트2021

- 북한 20년째 전세계 박해지수 1위



* 박해지도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전세계 최소한 3억 4천만 명의 크리스천들에게 상존하던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와 박해를 더욱 악화시키고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것이 월드와치리스트2021의 결론이다. 국제 오픈도어인터내셔널에 의해 행해지는,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 정도를 국가별로 모니터링한 지난 1년간의 조사 결과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50개국 전부가 최소한 “매우 높음”의 박해지수가 나왔다. 상위 12개국이 “극심함”의 박해지수가 나왔다. 전 년도는 11개국까지 “극심함”이었던 것에 비해 박해지

수가 더 높아진 것이다. 상위 50개국에 들지 않은 4개 국가들도 코로나19 규제의 영향으로 “매우 높음”의 박해지수가 나왔다. 전체적으로 74개국-전년도보다 1개국 추가-이 극심하거나, 매우 높거나 또는 높은 수준의 박해지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전 세계 크리스천 8명 중 1명이 박해상황에 있음을 의미한다.

2021년 1월 13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표되는 이 리스트(WWL2021)는, 전문가의 인터뷰와 함께, 광범위한 조사에 기반하여, 세계뉴스에 등장하는 나이지리아의 끊임없는 폭력과, 중국과 인도에서 사용되는 “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그 이면을 보여준다.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국가시스템이 지방의 보건, 식량, 일자리, 기타 일상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조직화된 범죄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지배력을 강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에 대한)국가통치의 결핍 또는 당국자들의 결탁은 너무나 자주, 종교적 이유의 폭력과 차별이 처벌을 받지 않게 만든다.

코로나19는 다음과 같은 나라에서 종교적 소수인 크리스천들을 억압하는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해왔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으로부터 예멘, 수단에 이르는 국가들에서 크리스천들에게는 때로 구호품이 거부되곤 했다; 일부 크리스천들은 “너의 교회 또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먹여야 한다” 또는 “이 바이러스는 서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퍼뜨려졌다”와 같은 말들을 들어야 했다.

소말리아의 폭력적인 이슬람 단체 ‘알 샤바브’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크리스천들 탓이라고 비난했다. 국가에 침입한 십자군(선교) 세력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이슬람을)믿지 않는 나라들에 의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됐다고 이들은 발표했다. 스리랑카 한 사건의 예와 같이, 경찰은 코로나바이러스

WWL2021 Top50 - 기독교박해지수 상위50개국

박해 순위	국가명	개인생활 박해지수	가정생활 박해지수	지역생활 박해지수	국가생활 박해지수	교회생활 박해지수	폭력지수	총합 박해지수
		6개 영역별 최다치 16.7						
1	북한	16.7	16.7	16.7	16.7	16.7	11.1	94
2	아프가니스탄	16.7	16.7	16.7	16.7	16.7	10.2	94
3	소말리아	16.5	16.7	16.6	16.6	16.3	9.8	92
4	리비아	15.6	15.4	15.9	16.3	16.3	12.4	92
5	파키스탄	13.9	14.2	15.1	14.9	13.5	16.7	88
6	에리트레아	14.6	14.9	15.9	15.9	15.4	11.1	88
7	예멘	16.6	16.6	16.5	16.7	16.7	3.9	87
8	이란	14.5	14.5	13.9	15.7	16.5	10.6	86
9	나이지리아	13.3	13.2	13.9	14.1	14.1	16.7	85
10	인도	13.0	12.9	13.5	14.9	13.7	15.4	83
11	이라크	13.6	14.6	14.2	14.8	13.8	11.5	82
12	시리아	13.3	13.9	13.5	14.5	14.0	12.0	81
13	수단	13.4	13.4	13.7	13.6	15.7	9.1	79
14	사우디아라비아	15.1	14.1	14.4	15.8	16.6	2.2	78
15	몰디브	15.4	15.5	13.9	15.8	16.6	0.4	77
16	이집트	12.5	13.2	11.5	12.7	11.0	14.1	75
17	중국	12.6	9.7	12.0	13.2	15.4	11.1	74
18	미얀마	11.9	12.0	13.1	12.9	12.3	11.9	74
19	베트남	12.1	8.8	12.7	14.0	14.5	10.0	72
20	모리타니아	14.3	14.0	13.5	14.1	13.6	1.9	71
21	우즈베키스탄	15.1	12.9	14.1	12.2	15.7	1.3	71
22	라오스	12.1	10.2	13.6	13.5	14.3	6.9	71
23	투르크메니스탄	14.5	11.3	13.8	13.3	15.7	1.5	70
24	알제리	13.9	13.9	11.5	13.1	13.4	3.9	70
25	터키	12.5	11.5	10.8	13.3	11.6	9.3	69
26	튀니지	12.0	13.1	10.4	11.5	13.2	7.4	67
27	모로코	12.6	13.5	11.2	12.4	14.1	3.7	67
28	말리	9.4	8.2	12.7	10.3	11.5	15.4	67
29	카타르	14.0	13.9	10.8	13.1	14.1	1.5	67
30	콜롬비아	11.4	8.8	12.4	11.0	9.7	13.9	67
31	방글라데시	11.5	10.3	13.0	11.3	10.1	10.6	67
32	부르키나파소	9.4	9.7	12.0	9.4	11.8	14.3	67
33	타지키스탄	14.0	12.3	11.9	12.5	13.2	2.2	66
34	네팔	12.4	9.7	9.9	13.0	12.3	8.5	66
3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9.0	8.6	13.1	9.6	9.9	15.6	66
36	에티오피아	9.9	8.5	10.7	10.3	10.8	14.4	65
37	멕시코	10.3	8.1	12.4	10.7	10.3	12.6	64
38	요르단	13.1	13.9	11.4	11.6	12.4	2.0	64
39	부르나이	13.9	14.6	10.7	10.9	13.5	0.7	64
40	콩고	8.0	7.9	11.2	9.4	11.6	16.1	64
41	카자흐스탄	13.2	11.5	11.0	12.5	13.4	2.4	64
42	카메룬	8.8	7.6	12.6	7.0	12.3	15.7	64
43	부탄	13.1	12.1	11.9	12.7	13.8	0.0	64
44	오만	13.2	13.5	10.3	12.5	13.0	0.9	63
45	모잠비크	9.3	7.6	11.3	7.9	11.1	16.1	63
46	말레이시아	12.1	14.3	12.9	11.5	10.0	2.4	63
47	인도네시아	11.5	11.4	12.4	10.7	9.3	7.8	63
48	쿠웨이트	13.2	13.5	9.9	12.2	13.2	1.1	63
49	케냐	11.7	9.2	10.5	8.0	10.3	12.8	62
50	코모로	12.5	11.1	11.4	11.3	14.2	1.9	62



스를 구실로 크리스천들의 가정을 찾아가 교인들과 활동들을 조사하곤 했다.

20년째 박해지수 1위인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여동생이 좀 더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9월에, 그녀는 유치원생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하루에 30분 하던 지도자들의 “위대함”에 대한 일일학습을 90분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그러한 광범위한 세뇌교육 앞에서, 크리스천 부모들은 거의 자녀들에게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할 수가 없다.

박해지수 상위 10개국 중에서 WWL2020과 달라진 주된 변화는 나이지리아이다. 나이지리아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 내에 진입했다. 전년도 12위에서 9위로 올라갔다. 예멘과 이란은 모두 한 단계씩 올라갔다.

인도는 전년과 같이 10위이다. 인도는 2020년에 처음으로 10권에 들었다. ‘인도인은 힌두교인이어야 한다’는 점점 증가하는 힌두교민족주의 때문이다.

나이지리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폭력지수를 기록했다. 주로 풀라니족 무장유목민들이 수백개의 크리스천 마을들을 습격했고, 보코하람과 여러 범죄집단들이 계속해서 살해와 납치, 강간을 저지르고 처벌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단은 배교(이슬람을 떠나는 것)에 대한 사형죄를 폐지했다. 수단의 2019년 임시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샤리아를 법의 근간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더 이상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하지 않았다. 물론 30년만의 이러한 급진적 변화에 대해 아직도 많은 저항이 있다. 수단은 최악의 박해국가 7위에서 13위로 내려갔다.

이라크는 15위에서 11위로 올라갔다. 부분적으로는 귀

향하는 크리스천 난민들의 지속적인 불안정성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은 계속 살해와 납치, 신체적 심리적 성적 정서적 학대를 받을 위험 하에 있다. 또한 많은 국내 난민들이 2020년 여름에 도후 지역에서 터키의 공격들 아래 들어갔다.

시리아는 11위에서 12위로 한단계 내려갔다. 특히 쿠르드족이 지배하는 지역들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폭력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들이 있다: 2019년 11월에 7명의 크리스천이 죽고 70명이 상해를 입었다.

박해지수 상위 12개국의 “극심한” 지수 외에도, 올해는 62개국이 “높은” 또는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지수를 보여주었다.

중국은 10년만에 처음으로 20위 안으로 올라왔다. WWL2020의 23위에서 17위로 뛰어올랐다. 공산당은 2020년 모든 종교에 대한 규제를 확대했다. 정부가 승인한 교회들도,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 더 심한 감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받고 있다. 18세 이하는 공식적으로 모든 종교활동이 금지된다. 기독교의 “중국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성경본문의 소위 “교정”까지 하고 있다.

대부분 13위~50위 국가들 가운데는 WWL2020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은 21위에서 19위로 순위가 올라갔다: 많은 부족의 소수 크리스천들이 코로나19 구호에서 배제를 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터키는 36위에서 25위로 뛰어올랐다. 주로 폭력지수의 증가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은, 2016년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시도가 있는 이후로, 공개적인 이슬람주의와 민족주의 의정목표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말한다. “중요 연설”이 일반적인 분위기가 되었고, 아르메니아와 그리이스정교와 같은 소수파들에 반대하는 조치들이 많아졌다. 2019년 10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에서 제3차 아프리카 무슬림 종교지도자들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아프리카 무슬림들을 개종시키는 선교사들을 비판하며, 선교사들이 서구 강대국들의 보호 아



래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는 41위에서 30위로 올라갔다. 2016년 평화협약이 깨지면서, 조직화된 범죄단체들이 계속해서 일부 지방들 특히 시골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다. 방역 격리 조치 동안, 이들 범죄단체들의 지배는 더 커져서 정부의 통행금지과 기타 규제들을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 임의로 이용했다. 이들은 정부 기관이 할 수 없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까지 구축할 수 있었다. 크리스천 리더들이 주민들에게 물질적, 영적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면, 이들 범죄단체들이 가로막고 심지어 벌금을 부과했다. 때로는 크리스천들을 자기들의 라이벌 범죄단체들 또는 경찰이나 국가의 “정보원”들로 취급했다. 따라서 때로는 목사들과 그 가족들이 살해되었다.

방글라데시는 38위에서 31위로 올랐다. 콕스바자에 있는 미얀마의 로힝야족 난민들에 대해서는 많이 보도가 되었다. 그들 가운데 약 2,000명의 MBB, 즉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있다. (2020년) 1월에 폭도들, 명백히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공격으로 2명의 MBB 남성이 납치되어 아직도 실종상태이며, 함께 납치된 14세의 소녀는 이슬람 무장단원에게 강제결혼을 당했다고 전해졌다.

멕시코도 37위로 더 올라갔다.(2019년 39위, 2020년 52위) 콩고 DRC는 40위로 올라갔다(2020년 57위). 주로 이슬람 단체 ADF 때문이다. UN에 의하면 2019년 이래로 ADF는 1,000의 민간인을 죽였다. 한편 모잠비크가 50위 내로 들어갔다.(전년도 66위에서 45위로 오름) 주요인은 카보 델가도에서 일어나 이슬람 폭력 때문이다. 카메룬은 앵글로폰-프랑코폰의 충돌과 보코하람 및 기타 이슬람 단체들의 폭력적인 팽창으로 인해 2020



년 48위에서 42위로 박해지수 순위가 높아졌다.

코모로 섬은 모잠비크 동부에 위치한 섬으로, 몇 년 만에 다시 50위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전년도 54위). 정부는 공개적으로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부정했다. 크리스천이 설교하는 것이 발견되면 1년 감옥형을 받을 수 있다.

50위 밖으로 박해순위가 내려간 두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와 니제르이다. 두 국가의 국가순위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내의 박해지수는 2020년과 비교할 때 더 높아졌다. 차별과 폭력의 수준이 여전히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오픈도어 CEO, 댄 올레 샤니는 올해의 월드워치리스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크리스천의 박해가, 코로나바이러스 규제들도 큰 몫을 했지만,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러한 크리스천들에 대한 굿뉴스는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고,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하며, 교회와 단체들과 종교적 자유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들을 위한 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된 기간(2019년10월1일~2020년9월30일) 동안, COVID-19 제한들로 인해, 그동안 축적된 현장 자료들 안에서 약간 조정을 해야 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도구와 전문가들의 연구조사와 함께, 오픈도어는 WWL2021의 박해지수 책정과 분석이 적절함과 신뢰성을 견지한다고 믿는다.

WWL2021

세계 기독교박해 동향 5가지

1 COVID-19가 기존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타 구조적 취약성들을 더 악화시켰다

팬데믹은 전세계 수백만 크리스천들의 기존 사회적, 경제적, 종족적 취약성을 더 노출시키고 악화시켰다. 팬데믹으로 인해 종종 감추어졌던 차별적 압박과 억압의 태도들이 표면화되었다. 온라인의 증오연설들이 한 예이다.

인도에서는, 10만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오픈도어 파트너의 긴급구호를 받았는데, 그중 80%가 정부의 식량 구호에서 배제된 경험을 보고했다. 일부 크리스천들은 수마일을 걸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식량을 얻기도 했다고 한다. 식량 배급을 받은 15%는 정부 또는 직장의 일용직에서 차별을 당한 것을 보고했다. 팬데믹 이전에, 한 정부 조사(2017~2018년)에 의하면, 다른 종교인 보다 크리스천들의 실업률이 더 컸다. 따라서 식량구호에서 배제되는 것은 전체 (크리스천) 공동체가 절박한 궁핍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인도에서만이 아니다; 최소한 미얀마,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말레이시아, 북아프리카, 예멘, 수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국가들의 시골지역에서 크리스천들은 구호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때로는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더 많은 경우 마을지도자들과 주민들에 의해서 배제되었다. 어떤 경우 식량배급카드를 찢거나 날려보내는 방법으로 배급을 못받게 했다고 한다.

나이지리아 남부 카두나에서는, 여러 마을에서, 크리스천 가정은 무슬림 가정에 주는 배급량의 1/6만 받았다는 보고들이 있다. 기나-비사우에서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때, 무슬림들이 정부에 크리스천 이웃주민들에 대해 ‘불평’을 했다. 기니에서는, 교회가 봉쇄되자, 아프리카 전통종교 추종자들이 목사들을 조롱했다.

다수 종교를 버리고 크리스천이 된 이들은, 정부와 지역당국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지역공동체로부터 모든 지원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안다. 그들은 코로나 19 때문에 수입을 잃어도, 생존을 위해 통상적인 공동

체에 의존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교회지도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끼쳤다. 많은 목회자들이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의 재정후원에 의존하는데, 교회 예배가 멈추니 후원금이 40%로 줄었다는 것이 이집트로부터 남미까지 교회지도자들의 보고이다. 이는 또한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영향을 준다. 교회 내외적으로

한편 어떤 크리스천들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부터 남미까지 여러 지역에서, 팬데믹 덕분에 지역 종교의식과 축제들에 참가하거나 도우라는 압력을 덜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의 개종한 성도들이 기독교에 적대적인 가족들과 집안에 갇혀 함께 지내야 해서 박해에 취약했다. 직장과 학교 및 기타 외부 활동으로 가족들의 감시와 핍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는데 집에만 있으니,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학대와 공격을 당했다. 박해지수 상위 10개 국가에서, 성도들과의 접촉을 잃고 정신적인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했다.

납치와 강제 개종, 여성과 소녀들의 강제 결혼도 증가했다. 전형적인 예가 독실한 이집트 크리스천 여성이었던 라니아 압델 마시의 경우이다. 39세로 세 딸의 엄마였던 그녀는 (2020년) 4월에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사라진 후에, 무슬림형제단과 연계된 웹사이트 동영상에 나타났다. 동영상에서 그녀는 니갑을 쓰고 나와, 자기가 9년째 무슬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협박하에 말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3개월 후에 언론보도와 콥트교회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그녀는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자기는 결코 이슬람으로 개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2 폭력적인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COVID-19 규제들을 이용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퍼지고 있다

사하라사막 바로 이남인 사헬지역에서는 불의와 가난 발판으로 이슬람 극단주의가 퍼지고 있다. 지하디스트

들은 정부의 취약한 실패들을 이용한다; 무장민병대들이 선전을 퍼뜨리고 대원을 모집하며 공격을 증가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배교자”들에 맞서서 지하드 전쟁을 벌일 것을 서약했다. 팬데믹은 이 배교자들 때문에 알라가 모두에게 내린 벌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지역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 규제로 크리스천에 대한 폭력도 대체로 줄어든 것과 달리, 폭력지수가 전년보다 30% 더 높아졌다. 수백개의 나이지리아 대부분 크리스천 마을들이 무장한 풀라니족 유목민들에게 점령을 당하거나 약탈을 당했다; 때로는 밭과 재배작물들이 명백한 “초토화” 전략으로 파괴되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은, 사헬지역 중앙-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난민이 발생하는 진앙지이다. 부르키나파소는, 최근까지 종교간의 조화로 알려졌지만, 1백만 명의 주민들이 -전 인구 대비 20명 중 1명 꼴로- 폭력과 가뭄으로 집을 두고 떠나야했다. (또 수백만 명은 굶주려 있다). 1000개 이상의 마을에서 무력충돌로 인해 크리스천들은 11월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 작년에 부르키나파소는 처음으로 월드와치리스트 상위 50개 국가에 들었다. 올해도, 이슬람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교회들을 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한 공격에서 14명, 다른 공격에서 24명 사망) 말리에는, 서구 크리스천 인질들이 아직도 잡혀 있거나 죽임을 당했다.

코로나19의 엄청난 여파는 실직상태의 청년들로 하여금, 토지와 자원, 정치를 놓고 종족간, 부족간, 종교간의 갈등을 이용하게 만들었다. 치안이 불안정한 주들에서는 극단주의 이슬람이 섞여 있고, 폭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신매매와 무기밀매도 만연해 있다. 휴먼라이츠 위치에 의하면, COVID-19 봉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에 있는 교육시설에 대해 85건 이상의 공격이 있었다. 크리스천들은 봉쇄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표적”이 되었다고 말했다. 치안담당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약탈자들과 한 통속으로 보였다. 결과적으로 자위대들이 성행하고, 지하디스트 단

체들도 분열되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보코하람의 리더 아부 바카르 쉐카우는 계속해서 이러한 분파들과 극단주의 풀라니 민병대들, 범죄조직들 간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북부 나이지리아의 허약한 치안상태를 이용하고 있다. 보코하람과 그 분파 단체인 서부아프리카이슬람국가(ISWA)는 카메룬 북부에서 약 400건의 폭력사태를 일으켰다. - 이는 그 이전 12개월 간 보다 90%가 증가한 수치이다. 400건의 공격 중 234건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동아프리카에서, 모잠비크는 중앙아프리카 지역 IS의 한 분파에 의한 폭력에 직면해 있다. 이들도 흔히 알-샤바브로 불리지만 소말리아의 알샤바브와는 다르다. 모잠비크의 이 IS분파는, 광물이 풍부하지만 개발이 되지 않은 북부 지역, 탄자니아와 접경하는 이 지역에 샤리아법을 실시하기를 원한다. 2017년 이후로 카보 델 가도 지역은 600건의 공격을 겪고 1,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으며, 3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여기서, 안와르 알 수나 그룹은 나이로비와 다레살람의 미국대사관 폭파 배후조정범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이들은 또한 탄자니아 접경의 크리스천 마을들도 이미 공격해왔다. 탄자니아의 인구는 1/3이 무슬림이고, 이슬람이 강한 잔지바르에서 선거폭력이 있었다. 따라서 옹저버들은 동아프리카 교회들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불안정성의 조짐들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DRC)는 자체적인 IS연계 단체, ADF(민주세력동맹)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다. ADF는 전에 우간다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반군이었다가 콩고로 밀려난 이후 북부 키부 지방에 자리를 잡았다. 이 지역에서 ADF는 광대한 시골지역의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수년간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학교, 진료소들을 공격했고, 교회들을 불태우고 공동체 리더들을 죽였다. 2020년 한 UN 보고서에 의하면, ADF는 2019년 초 이래로 1,000명 이상의 콩고 민간인들을 죽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범이며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60% 크리스천, 34% 무슬림)는, 종교적 합의를 가지는 종족적 정치 집단들로부터 오는 압력 하에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슬람세력에 취약하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같은 강대국들이 이곳의 지역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 싸우고 있다.

3 COVID-19로 인해 전체주의적 권위주의적 정부들의 감시와 규제가 합법화되었다.

중국을 코로나19를 결정적으로 억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9700만명(오픈도어 추산)의 중국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규제였다 - 감시가 집안으로까지 들어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활동을 추적하고 얼굴까지 스캔해서 공공보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등의 통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5억7천만개로 추산되는 중국의 CCTV카메라들 중에서 수백개가 얼굴인식 기능을 갖고 경찰서와 지역당국에 연결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사회신용시스템(SCS)을 구축할 계획인데 이는 결국 공공영역에서 정부에 반하거나 공산주의 신조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활동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헤난성과 장시성의 보고들에 의하면 그러한 카메라들이 이미 정부가 허가한 모든 종교시설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카메라들은 기본 CCTV카메라 옆에 설치된다 그러나 공안국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즉각적으로 다른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중국 북동부의 지린성 종교사무국은 그 지역의 모든 가정교회들을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코로나19의 성공적인 통제에 힘입어, 지방 공무원들은 건강관련 앱들을 사회신용 포인트들과 통합하기 원한다. 우려하던 대로, 사회신용들이 이미, 일부 지역에서, 종교와 연결되었다.

산시성, 헤난성, 장시성, 산둥성과 그밖에 다른 지방들에서 공산당 당국자들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와 같은 기독교 상징물들을 시진핑 사진들로 대체하기를 거부

하면, 연금을 포함하는 사회복지혜택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한 크리스천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그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공산당이 아닌 하나님에게 식량을 구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하는 교회들은 감시에 취약하다; 정부에 등록된 삼자애국교회들과 중국기독교위원회는 온라인 예배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부는 전국의 주민들을 감시합니다.”라고 산둥성의 한 정부허가 교회 책임자가 말했다. 그가 사는 도시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삼자교회에 들어갈 때, CCTV에 찍혔는데, 당국자들이 즉시 그 교회를 질책했다.

.2018년부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종교활동 참여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중국화” 정책은 2020년 2월1일부터 종교기관, 지도자 선택과 스태프 고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에 의해 확대되었다.

점점 더, 삼자교회와 미등록 “가정교회” 모두 성경을 포함한 기독교 자료들과 교회재산에 대한 압수를 당하고 있다. 교회 급습, 벌금 부과, 교회지도자 체포들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0월, 바티칸은 공산당과 2018년에 맺은 ‘합의’를 2년 더 연장했다. 세부사항은 비밀에 부쳐졌지만, 이것은 공산당에게 카톨릭 주교들을 “임명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믿어진다. 합의를 연장하기 전에 장시성의 사제들은, 그들이 정부가 인정하는 카톨릭애국협회에 가입하기를 거부한 후에, ‘성직자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그들은 가정에서도 감시를 당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 카톨릭 가정교회들은 6개월에 한번 미사를 드리기도 했다.

카톨릭 민동 교구의 “지하” 카톨릭교회 주교는, 오랫동안 당국의 괴롭힘을 받은 끝에 사임을 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후임자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후임자는 곧바로 33명의 사제단을 이끌고 종교의 “중국화”에 대한 교육을 받게 했다.

이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들에 의해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산둥지방과 점점 더 많은 다른 지방에서, 교회들은 정부가 준비한 포스터들을 게시해야 했다.

이 포스터들은 12가지 원칙들을 보여주는 성경구절들로 만들어졌다. *12 원칙들: 변영, 민주주의, 예절, 조화, 자유, 평등, 정의, 법의 지배, 애국, 헌신, 성실, 우정.

한 등록 교회는 팬데믹 후에 교회를 다시 여는 것을 금지당했다. 이유는 설교가, 팬데믹 예방의 영웅들에 관한 것이었는데, 사전 검열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위 종교의 ‘교정’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왜곡되게 다시 만들었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간음에 대해 돌을 던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시자 그들이 모두 떠나간 이야기가 공식적인 윤리책에서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예수님은 고발자들이 그 여인을 떠나기를 기다리신 후에, 직접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며, “나 역시 죄인이다. 그러나 법이 죄없는 사람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면 그 법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소프트 파워”를 통해 세계에 영향력을 퍼뜨린다. 물론 “일대일로” 추진을 통해서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가진다. 중국은 “보호”와 “보안”을 위해 (삶의) 전영역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을 수출한다 - 신장의 위구르인들을 통제하는 데서 보여지는 바와 같다. 중국 회사들은, 화웨이를 포함해서, 모든 감시관련 기술들을 63개국에 공급한다. 일부는 인권을 침해하고 종족적 종교적 소수를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라오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하는 나라들에 수출하고 있다.

4 다수종교를 정체성으로 하는 민족주의가 인도와 터키 같은 국가들에 서 증가한다

힌두 민족주의의 급증 가운데, 인도의 크리스천들은 공격적인 프로파간다의 압력을 일상적으로 받는다. 한 힌두사원은 바브리 모스크 땅에 세워지고 있다. 힌두 교도들은 이 모스크가 힌두교 주신의 7번째 화신인 라마의 출생지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한다. 힌두교 폭도



들이 1992년에 이 모스크를 파괴했고, 모디 수상은 이곳에 힌두교사원을 건축하는 것을 선거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제 두번째 임기에, 이 사원 건설은 그의 민족주의 지지기반을 위한 하나의 큰 성공이다. “인도인이 되려면, 힌두교도여야 한다”는 메시지는 폭도들이 계속해서 무슬림과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고 괴롭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힌두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수백만명은 접촉활동을 추적하는 앱을 두려워한다. 아로기야 세투(Aarogya Setu)와 같은 앱은 “숨어 들어가는 기능-function creep”이 있다. 또 다른 앱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 나이, 성별, 인종을 예측할 수 있다. 인도의 데이터보호법은 감시를 다루지 않는다. 이 법은 정부가 보호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심지어 국가안보 또는 범죄 조사와 같은 상황에서도 동의하도록 용인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인도는 또한 해외기금이 크리스천 병원이나 학교 및 교회 기관들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마찬가지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자기를 뽑아준 터키의 종교적 다수(이슬람)의 기대들을 성취시켰다. ‘하기아 소피아 대성당’을, 비잔틴 시대를 대표하는 최대의 성당인데,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투르크인들에 의해 함락됐을 때 이후 처음으로, 다시 모스크로 바꾸었다. 터키공화국 건국의 아버지, 아타투르크는 소피아 대성당을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2020년 7월 에

르도안은 법정을 설득하여 박물관에서 다시 모스크로 변경했다. 그로써 터키의 민족주의를 더 강화시켰다. 한 달 후에, 보도가 덜 되었지만,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교회인 코라(Chora)교회 또한 박물관에서 모스크로 바뀌었다.

2020년 1월에 터키의 남동부 국경지역 칼데아인 크리스천 부부가 외진 마을에서 납치되었다. 이 마을의 수세기 동안 내려온 기독교 역사는 터키 군대의 공경과 쿠르드족의 차별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이 부부는 10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와 당국으로부터 그 마을을 떠나라는 반복적인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마지막 크리스천들이었다. 아내의 시신은 3월에 발견되었으나, 남편은 아직 행방불명이다.

터키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서 퍼져간다. 가장 안좋은 예는, 주로 크리스천들이 거주하는 나고르노-카라바크 지역에 대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한 예이다. 충돌 기간에 터키 수도 앙카라에 사는 아르메니아인들과 칼데아인 크리스천들은 폭행을 당했고, 이스탄불에서는 다른 이들이 극우 폭도들에 의해 위협을 당했다. 수세기동안 내려온 종교간 적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킨 사례가 되었다.

북부 이라크에서, 터키는 쿠르드 노동당을, 테러리스트 단체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공격한다. 2020년에 그러한 공격들의 결과로 최소한 25개의 크리스천 마을들에서 주민들이 떠나야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IS가 지

배하는 동안 니스베 평원과 모술로 피난했다가 도둑 지역으로 옮겨갔지만 결국 터키의 공격들을 다시 받아야 했다. 그들의 상황은 더욱 취약해졌다. 이제 니스베 평원으로 돌아온 크리스천들에게는 치안 뿐만 아니라 생계가 주요문제로 남아있다.

터키가 시리아 다른 지역들로부터의 난민들을 북동부 시리아로 다시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 지역 인구분포가 바뀌었다.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이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쿠르드족 크리스천들이 취약해졌다. 2019년 10월 터키의 공습과 폭격은, 터키군이 시리아 이슬람 용병들과 함께 한 것으로 수백명의 크리스천들을 난민으로 만들었다. 2020년에 UN의 시리아 조사위원회는, “터키가 지원하는 시리아 군대는 인질극, 잔학행위, 고문, 강간 등의 전쟁범죄들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터키 지배하에 있는 무장단체들이 저지르는, 살해, 납치, 불법이송, 재산점유, 강제추출을 포함하는 국제법 위반행위들을 중지할 것을 터키에 촉구했다.(크리스천들의 재산에는 “N” 표식을 해놓았다고 전해진다. 이는 2014년에 IS가 한 것과 똑 같은 방식이다)

터키는 또한 리비아에 강한 전략지정학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리비아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오토만 제국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야망에 기초한 지역적 팽창에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터키는 현지의 여러 지하디스트 분파들을 지원하고, 또 4,000명 이상의 시리아 지하디스트들이 유입되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COVID-19가 중앙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조직화된 범죄 단체들이 활동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다

멕시코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 때문에 국가/지역 기관들이 조직화된 범죄를 다루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4개 지역에 걸쳐 마약밀매 단체들이 자체적인 코로나19 관련 통행금지를 부과했다. 이들에게 도전하는 카톨릭 주교들과 사제들, 개신교 목사들은 갈취와 잠복습격, 강도질, 총격을 당하고 살해당하기도

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려니, 정부가 식량,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실패하는 겹을 많은 마약밀매 그룹들이 메꾸면서 이들이 정치적 사회적 자본을 구축했다. 게레로 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방역 격리기간 동안 종교의식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단체들은 미사를 집전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사제들을 위협했다.

콜롬비아에서는, 게릴라들과 준군사조직들이 시골지방을 지배하는 여러 곳에서 이들은 개신교 목사들로 하여금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마을의 입구와 출구에서 경비를 서게 했다. 이는 목사들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일이 있었다. 이 두 나라는 WWL톱 50에 들지는 않지만 작년에 박해지수가 높았다. 이곳은 팬데믹 이전에도 불법단체들이 지배한 지역들이다. 엘살바도르에서, MS13과 같은 갱단은 강간을 무기화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020년에 개신교 목사들의 딸들을 강간하는 것을 목회자 가정 파괴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삼았다는 보고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굿뉴스도 있다:

수단은 배교(이슬람 신앙을 버리는 것)에 대한 사형죄 적용을 폐지했다. 새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슬람 샤리아법을 법의 근본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더 이상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하지 않는다. -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많은 저항이 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문화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래도 수단에서 6%를 차지하는 크리스천들의 삶은 나아지고 있다. 한 예로 교회부지를 불법 점거했다는 허위고발로 3년째 구금시켰던 8명의 교회지도자들을 지난 10월에 무죄 석방했다.

이라크는, IS로부터 모술을 탈환한 2017년 이후로, 젊은 무슬림 자원봉사자들이 파괴된 교회들과 주택들의 잔해를 청소하면서 모술을 떠난 크리스천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독교도 이라크의 역사적 뿌리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WWL2021 통계로 보는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

*조사기간 : 2019년10월 1일~2020년 9월 30일

박해 유형	WWL 2021	WWL 2020	WWL 2019	WWL 2018	WWL 2017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살해된 크리스천	4,761명	2,983	4,305	3,066	1,207
교회와 기독교 관련 건물 공격	4,488건	9,488	1,847	793	1,329
크리스천들을 재판 없이 구금, 체포, 형 선고, 수감	4,884건	3,711	3,150	1,905	-
크리스천들을 유괴, 납치	1,710명	1,052	-	-	-
크리스천들을 강간 또는 성희롱	3,005건 이상 (통계 불가)	8,537	-	-	-
크리스천들의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과의 강제 결혼	1,462건 이상 (통계 불가)	630	-	-	-
크리스천들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당함(폭행 및 살인협박 포함)	20,718건 이상 (통계 불가)	14,645	-	-	-
크리스천들의 집 또는 재산(가게 포함) 공격, 몰수, 파괴	8,666건 이상 (통계 불가)	5,294	-	-	-

• 신앙으로 인해 사망한 기독교인의 총 수는 4,761명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했다.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적인 살해는 아시아보다 아프리카에서 훨씬 더 높았다. 사망자의 91%는 아프리카(주로 나이지리아)에서, 8%는 아시아에서 발생했다.

•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받은 교회의 총 수는 4,488건

으로, 전년보다 53% 감소했다. 교회에 대한 공격은 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했다. 공격의 77%는 아시아(주로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아프리카에서 20%, 라틴 아메리카에서 3%였다.

• 신앙으로 인해 구금된 기독교인의 총 수는 3,420명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했다. 아프리카(43%)와 아시아(55%)에서 신앙 때문에 구금된 기독교인의 수는

비슷했다. 에리트레아(아프리카)와 중국(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했다. 신앙 때문에 기소된 기독교인의 총 수는 1,464명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다. 아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기소된 기독교인의 수(89%)는 아프리카(10%)보다 훨씬 많았다.

•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납치된 기독교인의 총 수는 1,710명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 아프리카(90%)에서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납치된 기독교인의 수는 아시아(9%)보다 훨씬 많았다. 주로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다.

• 믿음과 관련된 이유로 강간 또는 성희롱을 당한 기독교인의 총 수는 통계가 불가하나 보고된 것만 3,005건 이상으로 아프리카(49%)와 아시아(49%)의 비율이 거의 같았다. 주로 나이지리아(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아시아)에서 발생했다.

•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강제 결혼 역시 통계가 불가하나 보고된 것만 1,462건 이상으로 아시아에서의 비율(72%)이 아프리카(28%)보다 훨씬 높았다. 아시아에서는 주로 파키스탄 때문이다.

•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구타 및 살해위협 포함)를 받은 기독교인 수역시 통계가 불가하나 보고된 것만 20,718건 이상으로 아프리카의 비율(75%)이 아시아(23%)보다 훨씬 높았다. 나이지리아(아프리카)와 인도(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했다.

• 기독교인의 집 또는 기타 재산, 가게(사업체)이 공격을 받은 건 역시 통계가 불가하나 보고된 것만 8,666건 이상이다. 아프리카가 아시아 보다 두 세 배 이상 높고 주로 나이지리아(아프리카)와 시리아(아시아)에서 발생했다.

※ 신앙관련 이유로 집을 떠나야한 크리스천 수(국내난민) 또한 전체 통계 불가하나 129,777명 이상 보고되었다. 신앙관련 이유로 조국을 떠나야한 크리스천 수(국외난민)도 전체 통계 불가하나 14,885명 이상 보고되었다. 아시아의 비율이 42%, 아프리카가 57%였다.

국가별 박해 통계

*NN 표기된 국가는 보안상 이유로 익명으로 표시한 것임.
*10,100,1000 등의 수치는 통계불가한 정도를 나타낸 것임.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죽임을 당한 크리스천 수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처형 포함)

순위	국가	사람 수(명) WWL21/WWL20
1	나이지리아	3,530/1,350
2	콩고(DRC)	460/152
3	파키스탄	307/20
4	모잠비크	100/12
5	카메룬	53/10
6	부르키나파소	38/50
7	NN	36/10
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5/924
9	말리	33/10
10	NN	20/20
11	케냐	17/11
12	콜롬비아	16/16
13	인도	12/9
14	에티오피아	10/6
15	리비아	10/10
16	남수단	10/100
17	NN	9/11
18	시리아	9/10
19	이집트	8/23
20	멕시코	7/6
21	온두라스	6/0
22	탄자니아	5/0
23	우간다	5/9
24	엘살바도르	4/0
25	이라크	3/3
26	미얀마	3/3
27	방글라데시	2/0
28	기니	2/0
29	니제르	2/0
30	터키	2/0

그 외 6개 국에서 7명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공격, 파손, 폭격, 약탈, 파괴, 소실, 폐쇄 또는 몰수된 교회나 기독교 건물(학교, 병원, 공동묘지 등) 수는?

순위	국가	교회/건물 수(건) WWL21/WWL20
1	중국	3088/5576(20년)
2	나이지리아	270/150
3	앙골라	100/2000
4	콩고	100/10
5	에티오피아	100/124
6	르완다	100/700
7	방글라데시	90/14
8	인도	76/34
9	파키스탄	68/58
10	멕시코	61/8
11	중아아프리카	56/47
12	니카라과	35/10
13	우간다	24/7
14	에리트레아	27/21
15	콜롬비아	20/40
16	스리랑카	20/16
17	이란	17/23
18	인도네시아	16/10
19	카메룬	12/15
20	이라크	11/1
21	터키	11/4
22	부르키나 파소	10/50
23	부룬디	10/100
24	이집트	10/18
25	말리	10/100
26	모잠비크	10/5
27	네팔	10/7
28	니제르	10/10
29	남수단	10/10
30	베트남	10/10
31	미얀마	9/204

순위	국가	교회/건물 수(건) WWL21/WWL20
32	수단	9/32
33	라오스	8/5
34	탄자니아	8/10
35	케냐	7/3
36	기니	6/1
37	쿠바	5/3
38	시리아	5/5
39	튀니지	5/2
40	엘살바도르	4/0
41	온두라스	4/0
42	리비아	4/3
43	러시아	4/102
44	차드	3/4
45	NN	3/2
46	카자흐스탄	2/0
47	감비아	1/0
48	코트디부아르	1/1
49	말레이시아	1/0
50	타지키스탄	1/0

※중국의 교회공격은 십자가제거에서 완전한 교회철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3,088건으로 전년(5,576건)보다는 감소했다. 그러나 전년(WWL2020 보고기간)에 공격을 당한 교회가 여전히 이번 WWL2021 보고기간에도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WWL방법론은 새로운 사례만 통계로 계산한다. 앞서 언급한 보고기간에 공격을 받은 교회는 추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년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지난 두 보고기간 동안의 합계는 최소 8,644건이다.

※아프리카의 통계 숫자는 실제 보다 너무 적다. 폭력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공격을 받거나 폐쇄된 교회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무장한 풀라니족을 포함하여 지하드 단체가 기독교 마을을 수백 명씩 공격하는 나이지리아 및 기타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그렇다.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재판없이 구금된 기독교인의 수는?

순위	국가	사람 수(명)
1	중국*	1000/1000
2	에리트레아	930/785
3	이란	110
4	NN	100
5	파키스탄	100
6	알제리	97
7	인도	72
8	카메룬	32
9	투르크메니스탄	31
10	이집트	26
11	나이지리아	25
12	러시아	19
13	베트남	18
14	라오스	17
15	네팔	17
16	튀니지	17
17	르완다	16
18	멕시코	15
19	쿠바	13
20	모로코	12
21	미얀마	12
22	NN*	10
23	앙골라	10
24	부룬디	10
25	에티오피아	10
26	카자크스탄	10
27	리비아	10
28	모잠비크	10
29	NN	10
30	이라크	6
31	우즈베키스탄	6
32	요르단	5
33	모리타니아	4
34	탄자니아	4
35	시리아	3
그 외 15개국 24명		

기독교인들이 종교와 관련된 이유로 강간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한 수는?

* 사람/사례 수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 정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순위	국가	심각성 수치
1	나이지리아	1000
2	사우디아라비아	1000
3	카메룬	100
4	중앙아프리카	100
5	콩고(DRC)	100
6	요르단	1000
7	NN	100
8	파키스탄	100
9	온두라스	37
10	미얀마	25
11	이란	21
12	리비아	20
13	인도	15
14	멕시코	15
15	오만	11
16	알제리	10
17	바레인	10
18	부르키나파소	10
19	부룬디	10
20	중국	10
21	이집트	10
22	엘살바도르	10
23	에리트레아	10
24	에티오피아	10
25	이라크	10
26	쿠웨이트	10
27	말리	10
28	모로코	10
29	모잠비크	10
30	카타르	10
31	남수단	10
32	수단	10
그 외 다수		

치유와 소망, 복음의 전진

월드와치리스트2021 기독교박해 속에도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지속되었습니다



Sri-Lanka



미국오픈도어는 WWL2021 화상인터뷰로 2019년 스리랑카 부활절테러 희생자 레베카 자매를 만났습니다. 레베카는 인터뷰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게 능력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는 내가 80일 후에나 내 발로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나는 생각했어요, '예수님 손잡고, 나는 걸을 수 있을거야.'라고요. 나는 45일만에 걷기 시작했어요."



Indonesia

2020년 4월과 6월에 오픈도어는 인도네시아 어린이 알바로와 트리니티를 다시 찾아가 만났습니다. 이 어린

이들은 2016년11월13일 인도네시아 사마린다 교회 폭탄테러의 희생자들입니다. 끔찍한 화상을 입고 오랜동안 수차례의 고통스러운 수술과 치료를 잘 견디어낸 이 어린이들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알바로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체육시간이 좋다'고 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소녀 트리니는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울수 있다'는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Syria



시리아 희망의센터 어린이사역은 2020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전후하여 26,000권의 어린이 성경을 시리아 전역에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의선물 2021 캠페인

마이크로론으로 희망을 되찾다

시리아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알레포 도시는 거의 매일 공격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지는 가까스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아파트가 있었고, 일이 있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엄청난 폭발과 함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수입이 없어지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낙담했던 그는 희망의센터 교회의 도움으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2016년 서글픈 일, 하늘을 가르는 로켓이 알레포의 인구밀집 지역 위로 떨어졌습니다. 조지 가족이 살던 아파트도 파괴되었습니다. 조지와 아내와 두 딸과 사위 한명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은 7식구 모두가 숨졌습니다. 조지는 모든 것을 잃고 낙실에 빠졌습니다. 그때 조지는 알레포에 있는 한 희망의센터 교회에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거기 마이크로 프로젝트에 신청했어요. 내 가게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니까요. 내가 새로 시작할 이 사업장(가구수리)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약값을 도와주시고 임대료 지불을 도와주셨지요. 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고민으로 죽었을 거예요. 내가 자립할 수 있게 교회가 도와주셨습니다. 이 마이크로론으로 나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 박해지역 성도의 수입창출 프로젝트 후원 → ‘희망의선물’ 6번 (소식지 뒷면)

- ▷ 마이크로론(대출) - 예)사업장 임대료
- ▷ 수입창출 기계 지원 - 예)미싱
- ▷ 수입창출 가족 지원 - 예)염소
- ▷ 재배를 위한 종자 지원 - 예)옥수수

*금액은 국가별 지역별 현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코로나(COVID-19)긴급 구호

올해는 그동안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기아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긴급구호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코로나후원계좌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1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달/훈련	선물 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 포함	6\$ (7,000₩ ~)
	선물 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선물 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 지원 (SED)	선물 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선물 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순교자 가족 포함	40\$ (50,000₩ ~)
	선물 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선물 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 지원	20\$ (30,000₩ ~)
난민/투옥자/ 파괴된 교회 지원	선물 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시리아 난민 포함	50\$ (60,000₩ ~)
	선물 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투옥자 포함	50\$ (60,000₩ ~)
	선물 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예배장소 지원	100\$ (120,000₩ ~)

※ 기존 정기후원자님의 후원은 2021년 선물번호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다중선택 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02-596-3171/010-7548-3171) 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이름(예금주):	생년월일(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출금동의서명: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